

제 목	국 문	생활양식이 혈압에 미치는 영향		
	영 문	The Effect of Life Style on Blood Pressure		
저 자 및 소 속	국 문	주 리, 정 중 학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		
	영 문	Ree Joo, Jong-Hak Chung College of Medicine, Yeungnam Univ.		
분 야	역 학	발 표 자	주 리(전공의)	
발표 형식	구 연	발표 시간	15분	
진행 상황	연구완료 (    ), 연구중 (    √    ) → 완료 예정 시기 : 96 년 12 월			
<p>1. 연구 목적</p> <p>30세 이상의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고혈압 환자군 및 대조군을 선정하여, 개인의 일상적인 생활양식을 비교 조사함으로써 생활양식이 혈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하여 이 연구를 시행하였다.</p> <p>2. 연구 방법</p> <p>영남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산업의학과에서 1996년 6월부터 9월 사이 근로자 건강검진 및 성인병 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하여 1차 검진결과 고혈압으로 판정받은 검진대상자 중 고혈압의 진단 및 치료의 기왕력이 없는 만 30세 이상의 성인을 환자군으로 하고, 고혈압의 기왕력이 없는 정상혈압으로 판정된 만 30세 이상의 성인을 대조군으로 선정하였다. 검사항목으로서 신장, 체중, 비만도 등의 신체계측 및 총콜레스테롤, 혈당을 측정하였다.</p> <p>생활양식에 대한 조사는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성, 연령, 직업, 가구당 월평균 수입, 교육수준, 결혼상태 등의 일반적인 특성과 함께 고혈압에 대한 가족력, 염분의 섭취, 식습관, 음주량 및 흡연여부, 커피섭취량, 규칙적인 운동여부 등의 개인의 생활양식에 대한 조사와 함께 여성일 경우 폐경 여부에 대해 조사하였다.</p>				

### 3. 연구결과

1) 총 연구대상자는 280명으로서 환자군은 남자가 97명(74.6%), 여자가 33명(25.4%)이었고 대조군은 남자가 70명(46.7%), 여자가 80명(53.3%)였다.

2) 남녀 모두 환자군과 대조군에 있어 혈중 총콜레스테롤은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( $p < 0.05$ ). 남자에 있어 고혈압의 비가역적인 위험요인으로서 연령 및 고혈압의 가족력은 환자군, 대조군에서 분포의 차이는 없었으나 여성에서는 고혈압의 가족력의 분포가 환자군에서 유의하게 높았다( $p < 0.01$ ).

3) 남성에 있어 고혈압의 가역적인 위험요인으로 가정한 음주량, 흡연여부, 식염의 섭취량, 비만도, 육류섭취횟수, 커피 소비량, 규칙적인 운동 횟수는 단순분석 상 환자군과 대조군에서 유의한 분포의 차이는 없었다. 여성에 있어서는 육류섭취 횟수가 환자군에서 유의한 분포의 차이를 나타내었다( $p < 0.05$ ).

4) 고혈압의 가역적인 위험요인 간의 상관관계 분석에서는 남자에서는 흡연과 알콜섭취량이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고( $p < 0.01$ ) 알콜섭취량과 식염의 섭취도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( $p < 0.01$ ). 흡연과 커피의 섭취량도 상관관계가 있었고( $p < 0.01$ ) 흡연과 운동은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다( $p < 0.05$ ). 여성에서는 각 위험요인들 중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변수는 없었다.

5) 생활양식 중 위험요인으로 가정한 각 요인들의 혈압에 대한 정확한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지수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남자에서는 고혈압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유의한 요인으로서 비만(odds ratio=1.67)이 있었고, 여자에서는 비만(odds ratio=2.0), 육류섭취 횟수(odds ratio=2.91)가 있었고, 운동은 고혈압의 위험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났다(odds ratio=0.46)

### 4. 고찰

이상의 성적으로 기존의 알려진 고혈압의 위험요인들과 일치하는 부분도 있으나 이 연구에서는 그 중 일부만이 고혈압의 위험요인으로 나타났다. 생활양식 중 식염의 섭취량, 커피의 섭취량 등은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존하는 정보이므로 이를 정량화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.